

오횡묵(吳弘默)의 『고성총쇄록(固城叢瑣錄)』 소재(所載) 한시 연구*

김미선**

차 례

1. 머리말
2. 고성부사의 일기 『고성총쇄록』과 한시
3.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의 내용상 특징
4. 맺음말

| 국문초록 |

오횡묵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여러 지방관을 지낸 인물로, 1893년 2월부터 1894년 8월 까지 경상남도 고성의 부사(府使)를 지냈다. 그는 지방관을 지내면서 본인의 공무(公務)와 일상을 일기(日記)로 남겼는데, 고성부사 시절의 일기가 바로 『고성총쇄록』이다. 『고성총쇄록』은 당대 지방관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시를 수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상 특징을 제시하였다.

『고성총쇄록』에는 매달 적게는 3수, 많게는 31수에 이르는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1893년 2월 27일에 수록된 시를 시작으로, 1894년 11월 26일에 수록된 마지막 시까지 전체 317수의 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 317수는 대부분 제목이 없지만, 시를 짓게 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후 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작시 배경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의 내용상 특징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성부사로서의 공무와 애민(愛民)이 많은 시 속에 담겨 있다. 둘째, 고성 및 인근 지역의 풍경과 그곳에서의 유람을 시로 표현하였다. 셋째,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람들과의 교유를 담은 시를 다수 볼 수 있다. 넷째, 정원을 가꾸고 화초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 속에 담겨 있다. 다섯째, 19세기말의 혼란한 시국을 시로 표현하였고, 시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았다.

핵심어 : 오횡묵, 『고성총쇄록』, 고성부사, 일기, 한시

* 이 논문은 2023년 11월 18일에 열린 “한국시가문화학회 2023년 동계 학술대회-호남 시가문학의 전통과 확산”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1. 머리말

오횡묵(吳弘默, 1834~1906)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여러 지방관을 지낸 인물이다. 오횡묵의 자는 성규(聖圭), 호는 채원(菴園),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1887년 강원도 정선군수를 시작으로 다양한 지방관을 지냈다. 1888년 경상도 자인현감(현 경산군 자인면), 1889년 경상도 함안군수, 1893년 경상도 고성부사, 1896년 전라도 지도군수(현 신안군 지도면), 1897년 전라도 여수군수, 1898년 경상도 진보군수(현 청송군 진보면), 1900년 전라도 익산군수, 1902년 평택군수(현 경기도 평택시)에 임명되었다. 당시에 많은 지방관이 있었지만, 오횡묵이 주목되는 건 지방관 시절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기를 남겼다는 점에 있다.

오횡묵의 지방관 시절의 일기로는 『영남구휼일록(嶺南救恤日錄)』, 『강원도 정선군일록(江原道旌善郡日錄)』, 『경상도자인현일록(慶尙道慈仁縣日錄)』, 『경상도함안군총쇄록(慶尙道咸安郡叢瑣錄)』, 『경상도고성부총쇄록(慶尙道固城府叢瑣錄)』, 『전라도지도군총쇄록(全羅道智島郡叢瑣錄)』 등이 있다.¹⁾ 모두 필사본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²⁾ 오횡묵은 생전에 이러한 일기들에 수록된 시문을 선별하여 24책의 방대한 시문선집 『총쇄(叢瑣)』를 만들었다. 이 『총쇄』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문집총간’ 속집 141~142에 영인되어 있다.³⁾ 또 그는 세계 및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해 설명한 『여재촬요(輿載撮要)』를 지방관 시절에 집필하여, 고성부사로 있던 1894년에 완성하기도 하였다.

지방관 시절 오횡묵은 일기 속에 본인의 일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그날 창

1) 이 일기들은 필사본에 해당 명칭으로 쓰여 있지만, 이후 가독성이 높은 ‘정선총쇄록’, ‘자인총쇄록’, ‘함안총쇄록’, ‘고성총쇄록’ 등으로 명명되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고성총쇄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3)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오횡묵은 지방관 시절에 항상 일기를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든 지방관 시절의 일기가 현전하는 것은 아니다. 『총쇄』에는 일기가 현전하지 않은 지방관 시절의 시문도 남아 있어, 연구자들이 『총쇄』에 있는 여수군수 시절의 시를 책으로 엮어 내기도 하고, 익산군수 시절의 시문을 『익산총쇄록』으로 편차하기도 하였다(오횡묵 저, 김준옥·김병호·김희태 역, 『오횡묵의 「여수잡영」 120년 전 여수를 읊다』, 심미안, 2019; 오횡묵 저, 이의강 외 역, 『익산 총쇄록 상』, 익산시, 2022).

작한 시문을 수록하였고, 공문의 전문이나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 전체를 담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횡묵의 일기를 대상으로 당대 지방관의 공무와 관련한 미시사를 파악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⁴⁾ 그리하여 조선후기의 지방통치, 교육행정, 날씨와 기우제, 선물과 음식 등을 오횡묵의 일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일기 속에 『여재촬요』 집필 및 간행 과정이 담겨 있어, 『여재촬요』를 연구할 때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⁵⁾ 그런데 오횡묵의 일기는 당대 미시사를 볼 수 있는 사료이기도 하지만, 지방관의 삶을 생생하게 담은 일기문학이자 다양한 시문을 담은 문학 자료이기도 하다. 오횡묵 일기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자인총쇄록』 소재 한시에 대한 연구만이 확인되어,⁶⁾ 그 일기의 문학적 특성 및 가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오횡묵의 일기 중 경상남도 고성부사일 때 작성한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를 연구하고자 한다.⁷⁾ 『고성총쇄록』에 대한 연구로는 지방관의

4) 권미희, 『『정선총쇄록』으로 본 蔚園 오횡묵의 지방통치 사례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경옥, 『『智島郡叢錄』을 통해 본 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의 위상변화』, 『역사학연구』 29, 호남사학회, 2007; 김성윤, 『吳宥默(1834~?)을 통해서 본 수령 군현통치의 과정과 전략-『善政』 목민관의 모델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사학보』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박수정, 「조선 후기 수령 오횡묵의 교육행정 활동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손계영, 「19세기 관아의 주방과 수령의 음식」,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손계영, 「19세기 말 지방관의 업무와 기록물에 관한 연구-吳宥默(1834~1906)의 『咸安郡叢瑣錄』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4, 한국서지학회, 2018; 송양섭, 「1896년 智島郡 創設과 西南海 島嶼 支配構造의 再編-吳宥默의 『智島郡叢瑣錄』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 고려사학회, 2007; 오용원, 「祈雨祭儀를 통해 본 영남 지방관의 일상과 대민의식」, 『영남학』 1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윤지안, 「오횡묵의 생애와 식물재배 기록에 대한 고찰」, 『강원사학』 36, 강원사학회, 2021; 정순우, 「구한말 도서지방의 교육환경과 수령의 흥학 활동」, 『영남학』 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최성환, 「1897년 智島郡守 吳宥默의 島嶼巡行과 『尋眞錄』에 담긴 島嶼地域 향촌사회정보」,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하서정, 「1886년 嶺南別餉使의 파견과 실제-吳宥默의 『嶺南救恤日錄』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63, 한국고문서학회, 2023 등.

이 외에 조선후기 지방교육이나 강원지역 고문헌을 연구하면서 오횡묵의 일기를 여러 대상 자료 중 하나로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이성심, 「조선후기 面學의 교수체계 연구-도훈장제 및 면훈장제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7(2), 교육사학회, 2017; 이성심, 「조선후기 지방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정지연, 「강원지역 조선시대 고문헌 자료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등).

5) 박인호, 『『여재촬요』의 편찬과 편찬정신』, 『장서각』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임은진, 「개화기 지리교과서 『輿載撮要』의 집필 및 출판 과정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5(2), 대한지리학회, 2020; 임은진, 「오횡묵의 『여재촬요』를 통해 본 개화기 세계지리 지식의 흐름과 변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20 등.

6) 김남규, 「『慈仁叢瑣錄』 소재 오횡묵 한시 연구」, 『민족문화논총』 75, 민족문화연구소, 2020.

선물정치, 날씨와 정책, 지방관의 일상을 살핀 연구가 있다.⁸⁾ 박규택의 경우 한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날씨를 보는 자료로만 활용한 것으로,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상 특징적인 면모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성총쇄록』의 문학적 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 오횡목의 다른 일기 속 한시에 관심이 이어지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고성부사의 일기 『고성총쇄록』과 한시

오횡목의 『고성총쇄록』은 1893년 1월 29일부터 1894년 11월 26일까지의 일기를 담고 있다. 그런데 모든 날짜의 일기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 1893년 1월 29일, 1893년 2월 3일, 2월 21일의 일기가 있는 후, 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오횡목은 1893년 1~2월에는 이전 부임지인 함안에 있다가 2월 27일에 함안에서 고성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나, 2월 28일 고성 관아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893년 2월 25일 이전의 일기는 『함안총쇄록』에 주로 기록되어 있으며, 함안에 있던 중 고성과 관련된 날짜의 일기만 『고성총쇄록』에 기록되어 있다. 1월 29일에는 고성부사를 새로 임명하였는데, 오횡목이 수망(首望)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고, 2월 3일에는 서울 집에 고성으로 옮겨 부임한다는 기별을 보낸 내용이 있다. 2월 21일에는 고성에서 보낸 문안사(問安使) 편에 공문이 도착했고 고성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담겨

7) 『고성총쇄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이를 저본으로 한 번역본과 영인본이 2007년 고성문화원에서 출간되었다(오횡목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본 논문에서는 고성문화원 출간본을 주요 자료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번역을 일부 수정하였다. 『총쇄』는 ‘한국고전종합DB’에 탑재된 자료를, 『함안총쇄록』은 ‘한국학디지털 아카이브’에 탑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8) 김혁,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扇)」, 『영남학』 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박규택, 「오횡목의 『고성총쇄록』 漢詩에 나타난 날씨의 정치생태학적 고찰」, 『코기토』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박규택, 「조선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오횡목의 『固城叢瑣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오용원, 「日記를 통해본 地方官의 日常과 公私의 境界-吳宥默 『固城叢瑣錄』을 중심으로」, 『남명학』 16, 남명학연구원, 2011 등.

있다.

이후 고성부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1893년 3월부터 1894년 8월까지는 일부 누락된 일자를 제외한 거의 매일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오횡묵은 고성에 부임한 초기에는 읍지를 통해 고성에 대해 조사한 것을 일기에 기록하는 등 고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1893년 4월부터 권농(勸農)을 위해 순행(巡行)을 하며, 가뭄으로 인해 1893년 6월에는 8차례 기우제를 지낸다. 오횡묵이 고성에 부임한 해에는 흉년이 크게 들어 1893년 12월부터 보리를 수확하기 전인 1894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진휼(賑恤)에 힘쓰게 된다. 그리고 1894년 7월 고성에서 민요(民擾)가 일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다른 관직에 제수되어 8월 29일에 신임 고성부사와 교대하고 통영으로 갔다. 통제사에 작별 인사를 하고 9월 2일에 통영을 떠나 9월 18일에 서울의 집에 도착하였다. 이후에는 고성과 관련이 없는 오횡묵의 일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1894년 11월에는 11월 11일, 11월 26일 단 2일간의 일기만 있다. 11월 26일 일기는 고성 사람의 편지를 통해 고성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시를 지은 내용이다. 고성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11월 26일 일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날짜까지 『고성총쇄록』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오횡묵은 고성부사가 되기 전 지리서 『여재촬요』 집필을 시작해 고성부사로 있던 중인 1894년에 최종 완성하였다. 고성부사로 있던 시기는 개인적으로 『여재촬요』를 완성한 의미 있는 시기였으며, 『여재촬요』를 교정·간행하고 배부하는 과정을 『고성총쇄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894년은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 국가적으로 큰 사건들이 있었던 해로 그에 대한 기록도 볼 수 있다. 오횡묵은 기록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읍지에 기록된 고성에 대한 기록을 일기에 옮겨 적고, 고성에 대한 선인들의 한시 35수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시문을 일기에 기록하였으며, 한시의 경우 300수가 넘는 많은 작품을 수록하였다. 『고성총쇄록』에 수록된 오횡묵 한시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고성총쇄록』에는 매달 적게는 3수, 많게는 31수에 이르는 오횡묵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전체 317수이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1893년 일기에 162수, 1894년 일기에 155수가 수록되어 있다. 한 달에 시가 10수 미만으로 적은 수량인 경우는 1893년 2월, 6월, 7월과 1894년 2월, 11월이다. 1893년 2월은 고

〈표 1〉 『고성총쇄록』 소재 오항목의 한시 현황

순번	연월	한시 수량	형식 구분			비고
			절구	율시	고시	
1	1893년 2월	6	4	1	1	- 2월 28일 고성 관아 도착.
2	1893년 3월	24	16	5	3	
3	1893년 4월	13	3	5	5	
4	1893년 5월	15	3	7	5	
5	1893년 6월	3	·	·	3	- 가뭄으로 기우제 여러 차례 지냄.
6	1893년 7월	6	·	3	3	- 딸 사망 소식 들음.
7	1893년 8월	19	5	14	·	
8	1893년 9월	17	2	11	4	
9	1893년 10월	15	·	11	4	
10	1893년 11월	31	21	3	7	
11	1893년 12월	13	1	5	7	
12	1894년 1월	12	2	5	5	
13	1894년 2월	6	1	1	4	- 민요(民謠) 조사관으로 사천지역 다녀옴.
14	1894년 3월	11	·	7	4	
15	1894년 4월	10	1	5	4	
16	1894년 5월	23	7	10	6	
17	1894년 6월	30	13	9	8	
18	1894년 7월	10	3	4	3	
19	1894년 8월	12	4	3	5	- 8월 29일 신임 고성부사와 교대, 통영으로 출발.
20	1894년 9월	16	3	6	7	- 9월 18일 서울의 집에 도착.
21	1894년 10월	22	10	5	7	
22	1894년 11월	3	·	1	2	- 11월 11일, 11월 26일 일기만 수록.
합계		317	99	121	97	

성으로 부임한 달로 일기가 2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한시 수량이 적고, 1894년 11월은 고성을 떠나고 2개월이 지난 후로 이틀간의 일기만 기록되어 한시 수량이 적다. 고성부사로서 지내며 일기도 거의 매일 기록했던 시기임에도 한 달에 시가 10수 미만인 것은, 해당 월에 오횡묵에게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1893년 6월에는 가뭄이 심해 19일부터 26일까지 매일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공무에 바빴고, 1893년 7월에는 편지로 딸의 사망 소식을 들어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다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1894년 2월에는 사천지역에 일어난 민요(民擾)의 조사관으로 임명되어 15일부터 28일까지 사천지역에 다녀오는 등 공무에 바빴다. 이러한 상황이라 해당 월에는 시를 지을 시간과 마음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의 형식을 살펴보면 절구가 99수, 율시가 121수, 고시가 97수이다. 하나의 주제로 여러 수의 시를 지은 연작의 경우, 단형인 절구가 많다. 한 달의 시 수량이 가장 많은 1893년 11월에는 죽도(竹島)에 대한 20수의 연작시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은 1894년 6월에는 연꽃에 대한 3수의 연작시, 농사 걱정에 대한 7수의 연작시가 있으며 모두 절구이다.⁹⁾ 고시의 경우 구수가 자유로운데, 가장 장편인 경우는 1894년 9월 8일에 실린 120구의 시로, 고성에서의 일 전체를 돌아보며 지은 것이다. 두 번째로 장편인 경우는 1893년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에 실린 60구의 시로, 1년을 돌아보며 지은 것이다.

知爾當年慣別離	그대들이 이전에는 송별하는 관례가
長亭五里證分歧	오리정까지 나와 갈라섰는데
無端做此間商量	무단히 이러한 한가로운 생각을 하는가?
追一追來竟莫追	한번은 따라왔지만 마침내는 따르지 마오. ¹⁰⁾

『고성총쇄록』의 첫 시는 1893년 2월 27일에 수록되어 있으며, 마지막 시는 『고성총쇄록』에 기록된 마지막 날인 1894년 11월 26일에 수록되어 있다. 위는

9) 이외에도 1893년 2월 관아 풍경에 대한 연작시 2수, 1893년 3월 고을 풍경에 대한 연작시 10수, 1893년 5월 그네에 대한 연작시 3수, 1893년 11월 동지에 대한 연작시 3수, 1894년 10월 귀향 및 옛집에 대한 3편의 연작시(각 2수, 7수, 3수) 등이 있다.

10)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2월 27일;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28쪽.

1893년 2월 27일에 수록된 시이다. 먼저 “내가 함안에 있을 때 관속들이 증도에 나와서 전송한다는 말을 듣고 엄격히 사절했는데 지금 이들이 기필코 따라왔으니 서로 사모함이 특별함을 볼 수 있도다. 돌아가도록 명하고 시를 한 수 읊었다.”¹¹⁾라는 서술이 있고, 위의 시가 수록되어, 고성으로 떠나던 오횡목을 전송하는 함안 관속들에 대해 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략>

固之爲邑濱南極	고성이라는 고을은 남쪽 끝에 있으니
化行姑未窮河源	교화의 행함은 아직 근원에 닿지 못하였도다.
大明自是無私照	태양이란 본래 사사로운 빛이 없는 것이니
遐澁知應非覆盆	먼 곳이라도 비추지 않는 데가 없으리라.
寄語居民俱晏堵	주민들께 말하노니 안도하고 있으면
來秋且釀太平樽	오는 가을에는 또한 태평주 빚게 되리라. ¹²⁾

위의 일기의 마지막에 실린 1894년 11월 26일 시의 마지막 부분이다. 오횡목은 고성의 이방(吏房)이었던 김병용(金秉鎔)의 편지를 받고, 자신이 떠난 이후의 고성 소식을 들었다. 동학당이 고성에 들어와 토평한 일 등 편지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기술한 후, 고성은 지금 자신과는 무관한 곳이지만 편지 중에 좋은 소식이 없으니 마음에 잊히지 못한다고 하면서 44구에 이르는 고시를 지었다. 떠나는 중에 지은 첫 시의 경우 짧은 절구로 지었지만, 편지를 보고 깊이 생각한 후에 지은 마지막 시의 경우 호흡이 긴 고시로 짓고 있다.

오횡목은 일상 중 감흥이 일어났을 때 바로 시를 짓기도 하고, 친구의 부탁으로 시를 짓기도 하는데, 밤에 하루를 돌아보며 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에는 위의 마지막 시처럼 시로 그날 일기가 마무리되어, 오횡목이 하루의 일 중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다른 사람과 화답하여 시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일기에는 자신의 시만 수록하였다.

일기에 시를 수록하는 경우 제목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고성총쇄록』 소재

11) 吳宥默, 『固城叢瑣錄』, 1893년 2월 27일 “余之在咸時, 略聞官屬欲中路出餞云, 故嚴辭拒絕矣, 今此之期於追到, 可見其眷戀尤別也. 仍命還送有吟.”; 오횡목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28쪽.

12) 吳宥默, 『固城叢瑣錄』, 1894년 11월 26일; 오횡목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683쪽.

한시 317수에도 대부분 제목이 없다. 제목이 있는 시로는 1893년 6월 27일의 <고열행(苦熱行)>, 1893년 7월 26일의 <풍우탄(風雨歎)>, 1893년 10월 3일의 <풍우탄(風雨歎)>, 1893년 11월 14일의 <동지가(冬至歌)>, 1893년 11월 29일의 <죽도이십운(竹島二十韻)>, 1894년 5월 6일의 <풍우탄(風雨歎)> 정도가 확인 된다. 제목은 없지만 시를 짓게 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후 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작시 배경을 빠르게 파악하고 시를 읽어낼 수 있다.

『고성총쇄록』 속 오횡묵의 한시가 담고 있는 내용은 다양하다. 공무를 처리할 때는 그와 관련한 시를 지으며, 인근 명승을 유람하면서 시를 짓고, 벗들과 교류하며 시를 짓기도 한다. 또 멀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며 시를 지으며, 관아의 화초를 보며 시를 짓고, 쓸쓸한 밤에 외로운 감정을 시로 표현하기도 한다. 일상의 모든 경험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고성부사로서 살아가는 시기 일기 속 시는 다섯 가지로 그 내용상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고성부사로서의 공무와 애민’, ‘고성 및 인근 지역의 풍경과 유람’,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람들과의 교류’, ‘정원 가꾸기와 화초에 대한 애정’, ‘시국에 대한 관심과 회고(回顧)’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3장에서 구체적인 시를 바탕으로 내용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3.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의 내용상 특징

3.1. 고성부사로서의 공무와 애민

오횡묵은 백성들을 걱정하고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인물이다. 고성 이전 부임지였던 정선, 자인, 함안에서 덕정(德政)을 칭송하는 의미로 가진 수산(繡傘)을 받았고,¹³⁾ 강원도 정선의 통인(通引)이 경상남도 고성까지 오횡묵을 찾아와 정선에서의 선정을 칭송하기도 하였다.¹⁴⁾ 고성부사로서 공무를 수행하면서 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기 곳곳에서 확인되며, 이는 많은 시에서도 드러난다.

13) 박수정, 「『叢瑣錄』 자료 해제 및 교육적 가치」, 『교육사학연구』 18(1), 교육사학회, 2008, 41쪽.

14)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5월 27일.

古自城東南北西	고자성의 동서남북에
田連阡陌掌平齊	논밭 연이어 손바닥처럼 평평하네.
滂沱昨夜一犁雨	어젯밤에 쏟아진 한줄기 비
此疆彼界水滿堤	이쪽 저쪽 뚝방바다 물이 가득하구나.
田家作事貴及時	농가의 일은 때를 맞추어 중요하니
夙駕秧牛出恐遲	일찍부터 소 끌고 모내기를 서두르는 구려.

<중략>

驚看原上拄杖久	깜짝 놀라서 보니 언덕 위에 지팡이 짚은 사람
認是吾州新太守	아마도 우리 고을 새 원님인가 봐.
太守曾知尊且貴	원님은 본래 높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胡爲乎此泥中否	어찌 이 진흙 속에 오셨나?
莫是人忙不自閒	남들이 바쁘데 자기만 한가로울 수 없어
與農爲伍樂相關	농민과 어울려 서로 즐거워했으리.

<중략>

臨行且有中心貺	떠날 때 또한 마음의 선물 있어
分爲葉葉合爲緡	나누면 한 낚 한 낚이지만 꺾이면 꾸러미 된다.
吾儕小人食爲天	우리 서민들은 먹는 것이 으뜸이니
好是宵歸饒吸烟	좋을시고 밤에 돌아가서 싫도록 마시리라. ¹⁵⁾

<후략>

위는 1893년 4월 25일에 실린 시의 일부로, 전체는 36구로 이루어진 7언고시이다. 이날 오횡목은 권농을 위해 들판으로 나갔고, 모내기 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그리고 관아에서 나올 때 챙겨 온 돈을 사람들에게 3냥씩 나누어주게 하였고, 농민들은 기뻐하고 감동하는 빛을 보였다. 위는 그에 대해 읊은 시로, 모내기를 하는 고성 의 들판 풍경, 농민들을 보러 나온 부사 오횡목, 농민들에게 돈을 주는 상황 등이 재치 있게 표현되어 있다. 권농은 지방관의 주요 업무이긴 하지만 격려금까지 주고,¹⁶⁾ 진심으로 농민과 함께 즐거워하는 오횡목의 면모가 돋보인다.

15) 吳宥默, 『固城叢瑣錄』, 1893년 4월 25일; 오횡목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157~158쪽.

16) 이와 관련 오용원은 “오횡목이 농사를 慰撫하기 위해 장려금과 바늘짜지를 손수 농민들에게 하사한 일은 당시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하였다(오용원, 「日記를 통해본 地方官의 日常과 公私의 境界-吳宥默 『固城叢瑣錄』을 중심으로」, 『남명학』 16, 남명학연구원, 2011, 374쪽).

오횡목은 백성들의 농사를 걱정해, 보리밭이 침수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은 시,¹⁷⁾ 비바람, 가뭄, 흉년 등에 대해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시¹⁸⁾ 등을 지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해, 이에 대한 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략>

千金之費一時供	천금의 비용을 한때에 소비하고
數月經營下箸忽	몇 달 동안 주신한 음식 한상에 다하네.
但幸目前無笞罵	다만, 눈앞에 매질만 없으면 다행인데
支度誰能計多寡	비용이야 누가 많고 적음 따지지도 못 하도다.
一粒半緡從何生	한 알 곡식 반 꾸밀 돈인들 어디에서 생기는가?
該掌重之剩入下	관장하는 사람 거둬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네.
將此徵求疲力民	앞으로도 이러한 징수와 요구로 백성을 괴롭히리니
矧茲甫經歉年春	더구나 겨우 흉년 춘궁을 지났더라. ¹⁹⁾

<후략>

위는 1894년 3월 28일에 수록된 시의 일부로, 전체는 20구로 이루어진 7언 고시이다. 이날 신임 통제사가 지나가게 되었는데, 관례대로 신구(親舊) 통제사가 이 고을에서 교대할 것이라 생각하고 응접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전임 통제사가 사정으로 오지 않자 준비한 상은 고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였다. 이 비용을 민간에 배정하여 거둔다는 것을 안 오횡목은 이날의 시에서 위와 같이 ‘천금의 비용’을 하나의 행사에 소비하고, ‘징수와 요구’로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출하였다. 백성을 사랑하는 오횡목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2. 고성 및 인근 지역의 풍경과 유람

자기가 거주하는 곳을 떠나 낯선 부임지에서 일을 하는 지방관의 삶 중 장점

17)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4월 2~5일.

18)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4월 27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5월 26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8월 22일 등.

19)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3월 28일; 오횡목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440쪽.

은 해당 지역의 색다른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명승의 경우 일부러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지방관으로 부임지에 있을 때에는 인근의 명승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그림 1. 대한민국 지도의 고성군 위치²⁰⁾

위는 현재 대한민국 지도에서 고성군을 표시한 것이다. 고성은 경상남도의 남쪽에 위치해 바다와 접해 있다. 서울 사람인 오횡묵에게 바다 풍경은 인상적이었을 것이다. 오횡묵은 1893년 2월 28일 고성 관아에 도착한 후 관아의 풍경에 대한 시를 짓고, 같은 날 누각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바다 풍경에 대한 시를 지었다. 이때 조그마한 섬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섬은 죽도(竹島)로, 이후 오횡묵이 고성에서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오횡묵은 죽도 앞 바다에서 배를 띄우고 노닐고, 죽도에 올라서도 노니는데, 그러한 놀이에 대

20)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p/>)에 고성군 표시 필자 수정.

한 시를 짓는 것이 여러 차례 일기에 나온다.²¹⁾

畫檝浮空水接天	화려한 돛대 공중에 떠오르자 물은 하늘에 닿았고
笙簫淒切妓歌連	젓대와 통소 처량하니 기생의 노래도 이어진다.
喬松日下遊霄漢	신선 지경의 햇살은 천상에서 노니는 듯
鷄犬雲中入紫烟	닭과 개 짐승 울음소리 붉은 연기 속이로다.
一出城寰多勝覽	성밖에 한 번 나와 보면 좋은 경관도 많은데
重逢澤國證前緣	다시 바닷가를 만나 앞의 인연 증명한다.
東船西舫人如海	동쪽 배 서쪽 뗏목에 사람은 바다와 같으니
無盡風流畫抵年	끝없는 풍류에 하루가 1년 같도다. ²²⁾

위는 1893년 5월 8일 일기의 마지막에 수록된 시 전체로, 7언율시이다. 이날은 하지(夏至)로 함안 손님 5명, 좌수와 별감, 기생, 남창(男倡) 등과 죽도 앞에 배를 띄우고 노닐었다. 이날에는 아침부터 나가 하루 종일 유람을 즐겨, 이 유람의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위의 시로 일기가 마무리 되었다. 화려한 돛대의 배가 죽도 앞에 여러 척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 음악 소리 들리는 놀이 당시의 상황이 시에 그려져 있다. 오횡묵은 이후 1893년 9월 17일, 9월 25일, 10월 11일에도 죽도에서 노닐고 시를 짓는다. 그리고 1893년 10월 17일에 죽도의 풍경 스무 가지를 정하고, 1893년 11월 29일에 죽도 풍경 스무 가지에 대한 20수의 연작시 <죽도이십운(竹島二十韻)>을 지어 일기에 수록한다.

표 2는 <죽도이십운>의 소재목을 정리한 것으로, 오횡묵이 정한 풍경 스무 가지가 소재목이 되고, 7언절구가 각 1수씩 수록되어 있다. 즉흥적으로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고심하여 스무 가지의 풍경을 정하고, 그로부터 한 달 여가 지난 후 20수의 연작시를 완성한 것이다.

21)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5월 8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9월 17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9월 25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10월 11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3월 10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5월 23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6월 17일 등.

22)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5월 8일;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178쪽.

〈표 2〉 <죽도이십운>의 소재목

순번	소재목	순번	소재목
1	천왕취남(天王翠嵐, 천왕산의 푸른 아지랑이)	11	거류조일(巨留朝日, 거류산의 아침햇살)
2	풍운수죽(風雲脩竹, 풍운 속의 긴 대나무)	12	굴도만조(橘島晚潮, 굴도의 뒤 늦은 파도)
3	벽발제일(碧鉢霽日, 벽발산의 해)	13	우산낙조(牛山落照, 우산의 낙조)
4	백문행려(白門行旅, 백문의 나그네)	14	응봉귀조(鷹峰歸鳥, 응봉의 돌아오는 새)
5	법천효종(法泉曉鐘, 법천사의 새벽 종소리)	15	옥녀청하(玉女晴霞, 옥녀봉의 핀 노을)
6	금산석봉(金山夕烽, 금산의 저녁 봉화)	16	무학소송(舞鶴疎松, 무학산의 외진 소나무)
7	불암가화(佛巖嘉禾, 불암들의 황금 벼)	17	장항어가(獐項漁歌, 장항포의 어부가)
8	배산감천(盃山甘泉, 배산의 샘물)	18	구포풍범(龜浦風帆, 구포의 돛단배)
9	옥호군방(玉壺群芳, 옥호의 방초)	19	침해고각(枕海鼓角, 침해의 북, 피리 소리)
10	철옹모연(鐵瓮暮烟, 철옹의 저녁연기)	20	노도구루(蘆島鷗鷺, 노도의 갈매기)

月落星稀漏箭催 달 지고 별 빛나니 새벽은 재촉하는데
 有聲墜自法雲嵬 종소리 불법을 전해 들리누나.
 未論漱滌羶腥喜 모든 잡념을 씻음은 말할 것 없고
 喜在噲呖感應來 울려퍼지는 소리에 감응이 오리라.

〈법천효종(法泉曉鐘)〉

沃壤雍黃引白渠 비옥한 땅 옹주와 같고 도랑물 이끌어
 連雲穰稔掌平如 구름 같은 벼 싹 손바닥처럼 펼쳐있네.
 向微一陌巖前地 만약 바위 앞에 한 들판 없었다면
 縱有金剛不屬余 아무리 금강산의 경치라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으리.

〈불암가화(佛巖嘉禾)〉

篙師候信慣曾知 뱃사공은 기후 살펴 일찍부터 알았으니
 來打江城每趁期 강성의 조수 물은 매양 시간이 있도다.
 誰識天地噓吸氣 누가서 천지의 호흡하는 기운을 안다던가?

潛隨月窟互盈虧 달의 기울고 참을 따라 이뤄진다네.
 <굴도만조(橘島晩潮)>²³⁾

위는 <죽도이십운> 중 제5수, 제7수, 제12수를 제시한 것이다. 달 지고 별 빛나는 새벽에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제5수의 풍경은 다른 명승에 대한 시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이라 할 수 있다. 금강산보다도 더 의미 있다는 제7수의 벼가 있는 들판의 풍경에는 지방관인 오횡묵의 애민 정신이 반영되며, 제12수의 파도치는 굴도의 풍경에는 바닷가에 위치한 고성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오횡묵은 공무로 돌아다니다가 고성이나 인근의 풍경을 보고 시를 짓기도 하고, 가까운 명승을 일부러 찾아가 유람하고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예컨대, 1893년 3월 7일에는 통영에 가 통제사를 뵈고 그곳에서 묵게 되어 밤에 바다 풍경에 대한 시를 남겼고, 3월 10일에는 고성 고을을 순행하고 고을의 풍경에 대한 시를 지었다. 특히 10일에는 읍시 1수, 연작시인 절구 10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고성 고을의 풍경에 대해 읊은 것이었다. 이외에도 진주에 갔다가 축석루에 대해 읊은 시,²⁴⁾ 고성의 절 옥천사에 갔다가 하룻밤 묵고 내려오면서 풍경에 대해 읊은 시,²⁵⁾ 창녕의 경계에서 나루터의 풍경이 아름다워 읊은 시²⁶⁾ 등이 있었다.

3.3.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람들과의 교류

1834년 출생인 오횡묵은 고성부사에 부임할 당시 60세였다. 그에게는 아내와 세 명의 아들인 학선(學善), 익선(翼善), 극선(克善), 그리고 다섯 명의 딸이 있었다.²⁷⁾ 그런데 오횡묵은 고성부사 당시 가족들의 부양을 받지 않고 혼자 지냈으며, 아들이 잠깐씩 찾아오기만 하였다. 자인현감일 때는 아내가 함께 지냈지만, 그때 아내가 병에 걸렸다가 서울로 돌아가니 나은 적이 있어 이후에는

23)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11월 29일;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342~344쪽.

24)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3월 21일.

25)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8월 23일.

26)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8월 25일.

27) 김현구, 『해제』,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10쪽.

오횡묵 혼자 지낸 듯하다.²⁸⁾

노년의 나이에 홀로 고성에서 지내면서 오횡묵은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자주 시로 표현하였다. 가족들의 소식을 편지로 듣고 나면 그리움은 더하게 되는데, 1893년 7월 5일에는 권씨에게 시집 간 딸이 죽었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 딸은 6월 20일에 사망하였는데 오횡묵은 7월 5일에야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7월 20일에 예전 모습의 딸과 함께 가족들이 서울 집에서 단란하게 있는 꿈을 꾸고 깨어나 슬픈 마음을 시로 표현하였다. 이런 가족의 죽음뿐만 아니라 가족의 혼례에도 오횡묵은 함께 하지 못했다.

통영의 절신(節扇) 사령이 돌아오는 편에 가족 편지를 받아보니 둘째 손녀의 혼인을 지금 안기찰방 홍성윤의 둘째아들 경민과 결정해서 이달 13일에 납채를 받았고 26일에는 행례한다 한다. 딸 시집보내고 사위 맞는 것은 바로 인간 세상의 재미 있는 일이지만 나는 외로이 있어서 가정에 기쁜 일이 있어도 아득히 모르고 있으니, 도연명의 친척들과의 정담이 기쁘다는 말이 참으로 뜻이 있는 것이로다.²⁹⁾

我了向平債已久	나는 자식 혼사를 끝낸 지 오래이고
南遊十載超塵垢	남쪽생활 십 년에 가정사에 초연했네.
老去人情戀孫嬌	늘그막의 인정은 손녀를 사랑하는데
笑語依依膝左右	웃음소리 무릎 옆에 들리는 듯,
突然今作新笄娘	갑자기 새로 비녀 꽂는 낭자되니
前月東床迓玉郎	지난 달 동상에서 옥랑을 맞았다네.
只憑雁字聞消息	다만 서신으로 소식을 들었을 뿐
嘉悅何曾親見眷	좋아해도 직접 만나보지 못하누나.
攄懷望鄉欲上臺	회포를 풀려고 망향대 오르고 싶으나
身淡如禪心冷灰	몸은 담담한 스님 같고 마음은 쓸쓸하네.
人間樂事居家最	인간의 향락은 집 같은 곳 없으라
却憶淵明歸去來	문득 도연명의 귀거래사 생각노라. ³⁰⁾

28) 자인현감 시절 아내가 병에 걸렸던 일에 대해서는 김남규의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김남규, 『『慈仁叢瑣錄』 소재 오횡묵 한시 연구』, 『민족문화논총』 75, 민족문화연구소, 2020, 24~25쪽).

29)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6월 8일 “統營節扇使令回便見家書, 第二孫女定婚, 於今安奇察訪洪成潤第二子慶敏, 而本月十三日受采, 二十六日行禮云. 嫁女迎婿自是世間滋況, 而顧余孤客, 家有歡娛, 杳然不知, 淵明賦悅親戚之情話云者, 良有以也.”;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497쪽.

위는 1894년 6월 8일 일기의 전체이다. 가족의 편지를 통해 손녀의 혼인 소식을 알게 되고, 기쁘면서도 그에 참여하지 못해 쓸쓸한 오횡묵의 심정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날의 일기는 위의 서술과 시가 내용의 전체로, 손녀의 혼인 소식이 오횡묵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고성에서 맞은 두 번의 아내 생일에도 홀로 시를 짓고,³¹⁾ 아들의 임명 소식에 기쁜 마음을 시로 표출하며,³²⁾ 아픈 아들을 서울로 보낸 후 슬픈 마음을 시로 달래는 등³³⁾ 가족은 작시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가족과 떨어져 홀로 고성에 있어야 했던 오횡묵은 지인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이겨냈다. 기존에 지방관으로 다스렸었던 함안 고을의 사람들이 고성까지 오횡묵을 찾아와 만나기도 하고,³⁴⁾ 고성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대접을 받기도 하며,³⁵⁾ 지인들이 오횡묵을 만나러 고성을 찾아와 주기도 한다.³⁶⁾ 이러한 교류를 오횡묵은 시로 남겼는데, 오횡묵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은 오횡묵을 따라 고성까지 와 함께 지내 준 친구 석성(石醒) 김인길(金寅吉)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인길과의 교류를 담은 시가 가장 많으며,³⁷⁾ 새해 첫날에도 그와 함께하며 시를 짓는다.

有家人盡各歸家	집이 있는 사람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惟我與君天一涯	오직 나와 자네만이 천에 먼 지역에 남아있구나.
案有詩兮樽有酒	책상에는 시가 있고 술동이엔 술이 있으니
相酬且可樂年華	서로 권하고 마시며 새해를 즐겨보세.

30)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6월 8일;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497쪽.

31)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6월 17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6월 17일.

32)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7월 2일.

33)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10월 15일.

34)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5월 10일.

35)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4월 27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9월 11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9월 14일 등.

36)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5월 18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9월 16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9월 17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9월 19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11월 20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2월 28일 등.

37)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3월 21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3월 29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5월 2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8월 2일;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10월 23일 등.

多事久今無事好 오랫동안 많았던 일 오늘은 없어 좋고
 孤吟孰與對吟蒼 외로이 읊는 시가 함께 읊는 시만 하겠는가?³⁸⁾
 <후략>

위는 1894년 1월 1일에 수록된 시의 일부로, 20구로 이루어진 7언고시의 첫 부분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의 일기는 “신년 하례를 마친 후 좌수(座首) 이하 3반의 문안을 받고 각방의 하인들을 모두 물리고 이날은 아무 일도 없이 쉬면서 석성과 더불어 한가로이 담화하며 시를 지었다.”³⁹⁾라는 간략한 서술과 위의 시가 전체이다. 새해 첫날에 집이 있는 사람은 각자 자기 집으로 갔는데 먼 지역에 오횡묵과 김인길 둘만 남아, 서로 술을 권하고 시를 지으며 위로해 주는 것이 담겨 있다.

김인길은 고성에 올 때부터 오횡묵과 동행하였다. 관직에 얽매인 오횡묵과 다르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중간에 집에 다녀오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시간 오횡묵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고성부사직에서 교체되어 떠나게 되는 게 확정되자 김인길은 1894년 8월 4일에 먼저 고성을 떠나게 된다. 오횡묵은 김인길이 떠나기 전날에 김인길에 대한 시를 지어 스스로를 위로 하였다. 7언율시인 이 시는 “나그네 관사에 서로 따른 지 6년이라 / 깊은 못도 두 사람 정의 깊이는 못 미치리(旅館相隨六載今, 桃潭不及兩情深)”⁴⁰⁾로 시작한다. 오횡묵이 1887년에 강원도 정선군수로 지방관을 시작하였으니, 지방관 기간 내내 김인길이 오횡묵과 함께 하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3.4. 정원 가꾸기와 화초에 대한 애정

오횡묵은 화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관아의 정원에 화초를 심어 가꾸는 것이 확인된다. 그는 정원 가꾸는 것을 시로 짓기도 하고, 화초를 보고 감탄하며 시를 짓기도 한다. 원래 화초를 좋아한 성향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외로움이

38) 吳宥默, 『固城叢瑣錄』, 1894년 1월 1일;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373쪽.

39) 吳宥默, 『固城叢瑣錄』, 1894년 1월 1일 “賀禮後, 受座首以下三班問安, 并退送各房下人, 是日便無一事, 惟與石醒閒話賦詩.”;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373쪽.

40) 吳宥默, 『固城叢瑣錄』, 1894년 8월 4일;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582쪽.

더해서 이러한 시는 일기 속에 자주 등장한다. 오횡목은 1893년 2월 28일 고성 관아에 도착하고, 그날 바로 관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복숭아, 오얏나무, 해당화 등이 담장 사이에 흩어져 황량한 것을 보고, 전임 부사들이 화초에 관심이 적었음을 상상하며 시를 남겼다. 이어서 3월 8일에 꽃나무를 옮겨 심게 하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羣芳種種托新移	꽃 꽃나무 종류대로 새로운 땅에 옮기니
如保嬰兒費護持	어린아이같이 보호해서 붙들어 주네.
爲報東風遮莫屬	동풍에게 부탁하노니 너무 사납게 말지어다.
恐教苦蕾入看遲	꽃봉오리 늦게 피어날까 두렵다네. ⁴¹⁾

바람에게 사납지 말길 부탁하고 꽃봉오리 늦게 필까 두렵다고 한 표현을 통해, 화초를 사랑하고 정원 가꾸는 것에 진심을 다하는 오횡목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1893년 봄에 화초를 심어 정원을 가꾸기 시작한 이후 그 정원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오횡목의 모습이 확인된다. 예컨대, 1893년 5월 29일에는 관동을 시켜 물을 주게 한 백일홍 꽃이 피자 시를 짓고, 1893년 12월 9일에는 창가에서 키운 두견화에 꽃봉오리가 생기자 붉은 꽃이 피길 바라며 시를 짓는다.

전운사의 병세가 점점 차도가 있어 손님을 접대할만하다 하므로 오늘 마포(馬浦)에 한번 간다고 며칠 전에 명령을 발표하였으나 이 날에 내가 체증이 있어 매우 괴롭기에 내일로 미루기로 작정하였다. 정신과 기운을 추스르기 위해 지팡이를 붙들고 꽃밭에서 거니는데 문득 바라보니 연꽃 두 송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기뻐하며 시 세 수를 읊었다.⁴²⁾

盆作池兮竹作籬	동으로 못을 삼고 대나무로 울타리 삼으니
護持蓮子似嬰兒	연꽃 보호 아이 보호같이 하였네.

41)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3년 3월 8일; 오횡목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57쪽.

42)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6월 2일 “轉運使病勢漸差可以對客云, 故以今日馬浦一往事, 日前發令矣. 是日余有滯崇甚苦, 姑退明日作行事酌定, 爲紓神氣, 扶筇徊徨於花園, 忽見蓮花丰然出頭者二朵也. 戲題喜詩三疊.”; 오횡목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493쪽.

之栽之養俱臻妙 심고 기름 모든 묘법을 다하니
看葉看花喜自期 잎도 보고 꽃도 보아 스스로 기쁘구나.

憶昨團團葉始生 어저께는 둥글둥글 잎이 나더니
擎如仙掌露珠明 신선 손에 구슬을 받드는 듯.
中於百卉尤奇絕 모든 풀 가운데에서 더욱 기절하니
我已其時喜若驚 나는 이미 이때부터 기쁨에 놀랐노라.

怪爾朝來動細香 괴이하구나, 너는 아침마다 향기 뿜으니
挺然出水兩紅房 물 위로 뻗어난 두 개의 붉은 꽃.
頓令官圃增光紫 갑자기 관아로 하여금 광채를 더하니
眞個翁心喜欲狂 참으로 이 늙은 마음 미칠 지경이로세.⁴³⁾

위는 1894년 6월 2일 일기의 전체이다. 정해진 일정을 취소할 정도로 몸이 아팠으나, 연꽃 두 송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세 수의 시를 짓는 것이 확인된다. 처음에 연꽃을 보호하고, 이후 잎이 난 것에 기뻐하다가, 마지막에 두 개의 붉은 꽃을 보고 미칠 지경으로 좋아하는 심정이 세 수의 시에 차례대로 담겨 있다. 연꽃은 오횡묵이 매우 좋아했던 꽃으로 1893년 5월 18일, 1894년 4월 12일, 1894년 5월 15일, 1894년 6월 15일 등의 일기에도 연꽃에 대한 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성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떠나면 꽃이 주인 없이 된다고 안타까워하면서, 1894년 8월 21일에 기생들에게 연꽃 향아리를 주고 시를 짓는 것도 볼 수 있다.

3.5. 시국에 대한 관심과 회고(回顧)

오횡묵이 고성부사를 지낸 1893~1894년은 조선후기의 격동기로, 1894년에는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등이 있었다. 1860년 종교로 출발했던 동학은 1893년 집회에서 ‘척왜척양(斥倭斥洋)’을 내세워 사회적 성격을 보였고, 1894년 1월 고부민란을 계기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세웠다. 고부에서 일어난 농학농민군은 전라도 일대를 점령하였고, 4월 27일 호남의 감영인 전주성

43)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6월 2일;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493~494쪽.

을 점령하였다.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일본은 조선이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출병하였다. 동학농민군은 청나라와 일본 군대의 투입에 조선 정부와 회의를 하고 해산하였으나, 두 나라의 군대는 철병하지 않았다. 6월 21일 일본군은 경복궁 점령 사건을 일으켰고, 6월 25일 친일개화 인사들이 입각하였으며 갑오개혁이 시작되었다. 청나라와 일본은 6월 23일 풍도 앞바다, 27일 성황 전투, 8월 평양에서 교전을 벌였고 일본이 승리하였다. 해산하였던 동학농민군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일어났고, 1894년 9월 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일본과 전쟁을 벌였으며, 지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등 전국적이었다.⁴⁴⁾

오횡묵은 한반도의 남쪽 끝 경상남도 고성에 있었지만 이러한 사건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공문이나 편지를 통해 소식을 들으면 일기에 기록하고 관련 시를 지으며 그 관심을 표출했다. 1894년 4월 28일에는 호남의 소요가 심하다고 걱정하는 것이 시에 담겨 있고, 1894년 6월 13일에는 청나라와 일본이 대립하는 서울의 소식을 듣고 시를 지으며, 1894년 6월 29일에는 전주감영의 기별을 듣고, 담양 관아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서술하고 시국을 걱정하는 시를 지었다. 1894년 8월 16일에는 고성에도 동학의 무리가 들어오며, 이들을 타일러 보낸 후 동학의 형세를 걱정하는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長安城裡人波奔	장안성 안에 사람들은 파동이 일어나는데
長安城外騎雲屯	장안성 바깥에는 기마병 주둔하였네.
黃埃滿天風蕭索	먼지는 하늘에 가득 바람도 쓸쓸한데
羽書旁午日夕聞	전쟁소식 복잡하게 아침저녁 들리네.

<중략>

合浦故人惠我好	함포에 사는 친구가 나를 위해
爲誰禿盡中書君	편지 쓰느라 붓을 다 닳게 했네.
有酒醕我斟相賀	술이 있으면 내가 걸러 서로 권하리니
三軍不戰成奇勳	삼군이 싸우지 않고서도 공훈이 이뤄졌으면 ⁴⁵⁾

44)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는 안외순의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동방학』 4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276~297쪽)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45)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6월 13일;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500~501쪽.

위는 1894년 6월 13일에 실린 시의 일부로, 전체는 24구로 이루어진 7언고시이다. 지난달에 서울에서 나온 기별을 보니 청나라와 일본 두 나라 병사가 서울 안과 밖에 주둔하고 교전한다고 선포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친구가 보낸 전보를 통해 두 나라가 화해하여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시를 지은 것이다. 이날의 일기는 전쟁에 대한 소식과 위의 시가 전체 내용으로, 먼 지방에 있지만 시국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횡묵이 고성부사로 있던 시기는 우리나라가 변화하던 중요한 때이기도 하지만, 오횡묵 개인적으로도 본인의 역작(力作)이라 할 수 있는 지리서 『여재촬요』를 완성한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⁴⁶⁾ 오횡묵은 즉흥적으로 당시의 감흥을 시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끝났을 때 그 경험을 돌아보는 시를 남기기도 한다. 이때에는 장편의 고시로 표현하는데, 『여재촬요』를 완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본 시도 확인된다.

妙齡賦遠遊	젊은 나이에 먼 유람 지으니
豪氣貫墟牛	호방한 기운 하늘의 별에 닿았지.
覽了三千里	삼천리 다 보았으니
遍幾二百州	이백 고을 거의 두루 다녔네.
搏鵬終有歇	봉새도 끝내는 휴식이 있는 것
磨蠓詎能周	개미의 힘으로 어찌 다할 손가?
況值名羈絆	더구나 벼슬길에 얽매었으니
無緣宿願酬	숙원을 이루는 인연이 없었도다.
爰從輿地載	이에 여지승람을 통해서
聊寓木天搜	그런대로 박학을 이루었네.
簿墨遑偷暇	문서처리 속에 여가를 훔치기도 하고
圖經廣送求	책 속에서 널리 찾아도 보았도다. ⁴⁷⁾

〈후략〉

46) 오횡묵은 1892년 7월에 『여재촬요』를 5권으로 완성하였고, 이를 요약하여 1권의 책으로 만들었으며, 1894년 5월에 최종적으로 10권으로 완성하였다. 1896년 이후 학부에서 1권의 『여재촬요』가 교과서로 선정되면서 대규모로 발간되었다(임은진, 「개화기 지리교과서 『輿載撮要』의 집필 및 출판 과정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5(2), 대한지리학회, 2020, 219쪽).

47) 吳弘默, 『固城叢瑣錄』, 1894년 5월 7일; 오횡묵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476~477쪽.

위는 1894년 5월 7일에 수록된 시의 일부로, 전체는 40구로 이루어진 5언 고시이다. 젊었을 때 전국을 돌아다니고, 벼슬길에 있으면서는 책을 통해 지리에 대한 지식을 찾은 것을 위의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이후 편집하고, 교정하고, 장책하고, 제목을 붙이는 과정이 시에 담겨 있으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시를 끝맺는다. 위의 시를 통해 스스로도 『여재촬요』 완성 과정을 돌아볼 수 있고, 독자들도 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볼 수가 있다.

〈표 3〉 『고성총쇄록』 소재 장편 고시

순번	수록 일자	한시 구수	한시 내용
1	1893년 3월 28일	40	- 벗 늙은(廩隱) 박준경(朴準敬)에 대한 만시로, 박준경과의 교유를 돌아봄.
2	1893년 9월 14일	54	- 재해 조사를 마친 후 재해 조사 전체를 돌아봄.
3	1893년 12월 30일	60	-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봄.
4	1894년 5월 7일	40	- 『여재촬요』의 작성 과정을 돌아봄.
5	1894년 6월 29일	48	- 동학, 청일전쟁 등 시국을 걱정함.
6	1894년 8월 18일	42	- 고성의 민요(民謠)를 돌아봄.
7	1894년 9월 8일	120	- 고성에서의 일 전체를 시간순으로 돌아봄.
8	1894년 9월 24일	44	- 자신의 벼슬살이를 돌아봄.
9	1894년 11월 27일	44	- 고성 소식을 듣고 고성에 대해 생각함.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 중 40구 이상인 장편의 시는 모두 9수로,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 재해 조사가 끝났을 때, 저작이 완성되었을 때, 민요가 해결되었을 때, 고성에서의 관직생활이 끝나고 난 후 등 오횡묵에게 있어 중요한 일이 끝난 후 전체를 돌아보고 장편의 시를 짓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인생의 굵직한 일이 마무리된 시기에 그 일 전체에 대한 시를 지음으로써, 오횡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독자는 오횡묵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을 한눈에 볼 수 있다.

4. 맺음말

오형묵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여러 지방관을 지낸 인물로, 1893년 2월부터 1894년 8월까지 경상남도 고성읍의 부사를 지냈다. 그는 지방관을 하면서 본인의 공무와 일상을 일기로 남겼는데, 고성부사 시절의 일기가 바로 『고성총쇄록』이다. 『고성총쇄록』은 당대 지방관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시를 수록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상 특징적인 면모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고성총쇄록』의 일기 기간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한시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고성총쇄록』에는 매달 적게는 3수, 많게는 31수에 이르는 한시가 꾸준히 수록되어 있었다. 1893년 2월 27일에 수록된 시를 시작으로, 1894년 11월 26일에 수록된 마지막 시까지 전체 317수의 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도별로 구분하면 1893년의 시가 162수, 1894년의 시가 155수였다. 오형묵은 일상 중 감흥이 일어났을 때 바로 시를 짓기도 하고, 친구의 부탁으로 시를 짓기도 하는데, 밤에 하루를 돌아보며 시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에는 시로 그날 일기가 마무리되어, 오형묵이 하루의 일 중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유추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과 화답하여 시를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일기에는 자신의 시만 수록하였다.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 317수는 대부분 제목이 없지만, 시를 짓게 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후 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작시 배경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의 내용상 특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고성부사로서의 공무와 애민이 많은 시 속에 담겨 있었다. 선정을 베풀며 백성들을 걱정했던 오형묵의 생각이 시 속에 반영되어 있었고, 신임 통제사를 맞이하는 행사에서도 그 비용 마련을 위한 백성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고성 및 인근 지역의 풍경과 유람에 대한 시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죽도에 대한 많은 시를 확인할 수 있었고, 죽도의 풍경 스무가지를 정하여 20수의 절구로 읊은 <죽도이십영>도 있었다. 셋째,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담은 시를 다수 볼 수 있었다. 서울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오형묵의 가족에 대한 시 속에는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

있으며, 지인들과의 교류로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넷째, 정원을 가꾸고 화초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 속에 담겨 있었다. 오횡묵은 고성 관아에 정원을 가꾸며 이를 시로 남겼고, 몸이 아플 때도 연꽃이 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시를 짓기도 하였다. 가족과 떨어져 먼 남쪽 고을에서 외롭게 지내고, 백성 걱정과 공무로 힘든 오횡묵에게 화초는 위로와 기쁨이 되었기에, 이에 대한 시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19세기말의 혼란한 시국을 시로 표현하였고, 시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았다. 지방에 있었지만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등 시국에 관심을 가진 시를 볼 수 있었고, 『여재촬요』 완성과 같이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끝났을 때 그 경험을 돌아보는 시를 남기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고성총쇄록』은 약 1년 10개월 동안의 일기로, 2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오횡묵이 지은 317수에 이르는 많은 시를 수록하고 있다. 양적으로 풍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살펴본 결과 고성부사라는 지방관으로서의 공적인 면모, 가족과 떨어져 홀로 먼 지역에 있는 노인의 개인적인 서정, 고성이라는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풍경, 19세기말 나라의 격동기를 살았던 당대 사람의 마음 등이 다채롭게 담겨 있었다. 더구나 구체적인 경험 서술과 함께 시가 있어, 『고성총쇄록』은 19세기말 지방관의 풍부한 한시를 발굴하고, 그 작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문학 자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첫 연구로, 전반적인 면모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성총쇄록』 소재 한시의 주제별 연구, 오횡묵의 다른 일기 소재 한시와의 비교 연구 등을 추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고성총쇄록』을 비롯한 오횡묵의 일기에 대한 문학적 연구가 활성화 되고, 그의 일기 소재 한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吳弘默, 『固城叢瑣錄』
_____, 『咸安叢瑣錄』
_____, 『叢瑣』
오형목 저, 이성우 역, 『國譯 固城叢瑣錄』, 고성문화원, 2007.
오형목 저, 김준옥·김병호·김희태 역, 『오형목의 「여수잡영」 120년 전 여수를 읊다』, 심미안, 2019.
오형목 저, 이의강 외 역, 『익산 총쇄록 상』, 익산시, 2022.
- 권미희, 「『정선총쇄록』으로 본 蔚園 오형목의 지방통치 사례연구」, 강릉원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경옥, 「『智島郡叢錄』을 통해 본 19세기 서남해 도서지역의 위상변화」, 『역사학연구』 29, 호남사학회, 2007.
(UCI : G704-001257.2007..29.016)
- 김남규, 「『慈仁叢瑣錄』 소재 오형목 한시 연구」, 『민족문화논총』 75, 민족문화연구소, 2020.
(DOI : 10.15186/ikc.2020.08.31.1)
- 김성윤, 「吳弘默(1834~?)을 통해서 본 수령 군현통치의 과정과 전략「善政」목민관의 모델과 관련하여」, 『조선시대사학보』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UCI : G704-000303.2010..53.001)
- 김혁, 「조선시대 지방관의 선물정치와 부채(扇)」, 『영남학』 15,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UCI : G704-002018.2009..15.012)
- 박규택, 「오형목의 『고성총쇄록』 漢詩에 나타난 날씨의 정치생태학적 고찰」, 『코기토』 86,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DOI : 10.48115/cogito.2018.10.86.219)
- _____, 「조선 후기 지방의 날씨, 농사·주민의 삶, 정책의 상호관계-오형목의 『固城叢瑣錄』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한국지역지리학회, 2010.
(UCI : G704-000607.2010.16.3.004)
- 박수정, 「『叢瑣錄』 자료 해제 및 교육적 가치」, 『교육사학연구』 18(1), 교육사학회, 2008.

(UCI : G704-001836.2008.18.1.002)

_____, 「조선후기 수령 오횡목의 교육행정 활동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6(1),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UCI : G704-000511.2008.26.1.010)

박인호, 「『여재촬요』의 편찬과 편찬정신」, 『장서각』 39,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DOI : 10.25024/jsg.2018..39.271)

손계영, 「19세기 관아의 주방과 수령의 음식」, 『영남학』 17,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UCI : G704-002018.2010..17.003)

_____, 「19세기 말 지방관의 업무와 기록물에 관한 연구-吳弘默(1834~1906)의 『咸安郡叢瑣錄』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74, 한국서지학회, 2018.

(DOI : 10.17258/jib.2018..74.31)

송양섭, 「1896년 智島郡 創設과 西南海 島嶼 支配構造의 再編-吳弘默의 『智島郡叢瑣錄』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26, 고려사학회, 2007.

(UCI : G704-000690.2007..26.004)

안외순,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동방학』 4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20.

오용원, 「祈雨祭儀를 통해 본 영남 지방관의 일상과 대민의식」, 『영남학』 16,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UCI : G704-002018.2009..16.013)

_____, 「日記를 통해본 地方官의 日常과公私의 境界-吳弘默 『固城叢瑣錄』을 중심으로」, 『남명학』 16, 남명학연구원, 2011.

윤지안, 「오횡목의 생애와 식물재배 기록에 대한 고찰」, 『강원사학』 36, 강원사학회, 2021.

(DOI : 10.31097/KHR.2021.36.07)

이성심, 「조선후기 面學의 교수체제 연구-도훈장제 및 면훈장제를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7(2), 교육사학회, 2017.

(DOI : 10.18105/hisedu.2017.27.2.004)

_____, 「조선후기 지방교육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임은진, 「개화기 지리교과서 『輿載撮要』의 집필 및 출판 과정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55(2), 대한지리학회, 2020.

(DOI : 10.22776/kgs.2020.55.2.219)

_____, 「오횡목의 『여재촬요』를 통해 본 개화기 세계지리 지식의 흐름과 변용」, 『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2),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20.

(DOI : 10.17279/jkagee.2020.28.2.57)

정순우, 「구한말 도서지방의 교육환경과 수령의 흥학 활동」, 『영남학』 20,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1.

(UCI : G704-002018.2011..20.009)

정지연, 「강원지역 조선시대 고문헌 자료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최성환, 「1897년 智島郡守 吳弘默의 島嶼巡行과 『尋眞錄』에 담긴 島嶼地域 향촌사회정보」,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하서정, 「1886년 嶺南別餉使의 파견과 실제-吳弘默의 『嶺南救恤日錄』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63, 한국고문서학회, 2023.

(DOI : 10.21027/manusc.2023.63..004)

국립중앙도서관(<https://www.nl.go.kr/>)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p/>)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한국학디지털아카이브(<http://yoksa.aks.ac.kr/>)

| Abstract |

A study on Sino-Korean Poems in Oh Hoeng-muk's 『Goseong Chongswaerok』

Kim, Mi-sun
Chonnam Univ. Lecturer.

Oh Hoeng-muk was a provincial governor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From February 1893 to August 1894, he was the governor of Goseong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He kept a diary of his official duties and daily life while serving as a local government official, and 『Goseong Chongswaerok』 is his diary of his time as governor of Goseong. In addition to detailing the life of a provincial governor of the time, 『Goseong Chongswaerok』 also contains various Sino-Korean poems. This paper identifies the overall status of Sino-Korean poems in the 『Goseong Chongswaerok』 and presents their content features.

『Goseong Chongswaerok』 contains Sino-Korean poems ranging from as few as three to as many as 31 every month. Starting with the first poem on February 27, 1893, and ending with the last poem on November 26, 1894, there are a total of 317 poems as confirmed. Most of the 317 Sino-Korean poems in 『Goseong Chongswaerok』 are untitled, but the poems are followed by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circumstances that led to the writing of the poems, so it is possible to quickly grasp the background of the writing.

The Sino-Korean poems in the 『Goseong Chongswaerok』 can be summarized in five ways. First, Oh Hoeng-muk's official duties as the governor of Goseong and his love for his people are reflected in many of the poems. Second, the landscape of Goseong and its neighboring areas and his travels there are expressed in poetry. Third, there are many poems about longing for his family and socializing with people. Fourth, his love of gardening and plants is reflected in his poems. Fifth, he expressed the chaotic times of the late 19th century in his poems and reflected on his experiences through poetry.

Key words : Oh Hoeng-muk, 『Goseong Chongswaerok』, governor of Goseong, diary, Sino-Korean poetry

투고일 : 2024년 1월 29일 심사기간 : 2월 6일 - 2월 18일 게재확정일 : 2월 18일

